

<중국 톱>

중국 은행업, 민간자본에 전면 개방

■ 6월 26일 중국 국무원은 「민영은행발전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关于促进民营银行发展的指导意见》」(이하 ‘의견’)을 발표하고 민영은행 설립을 허가함.

– 이에 따라 민간자본이 은행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며 중국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이하 ‘은감회’)는 정식으로 민영은행의 설립허가 절차 업무를 수행하게 됨.

○ 이미 40여개의 민간기업이 민영은행 설립을 신청하였음.

– 중국의 금융 부문은 국가가 통제하고 있으며 은행 업무 대부분은 국유기업 또는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동 의견에서는 민영은행 설립의 기준 및 원칙을 제시하고 설립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 민영은행 설립을 위해서 기업은 △최근 3년간 흑자 △총자산 중 순자산의 비중 30%이상 △지분투자금액이 순자산의 50%미만 이어야 함.

– 은감회는 기존 6개월이 소요되던 민영은행 설립 허가 심사 기간을 4개월 이내로 단축함.

표 1. 중국 민영은행 설립기준 및 원칙

4대 기준	5대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기준: 순수 민영자본– 출자자 기준: 불량 기록이 없는 자본소유자– 은행기준: 합리적인 지분 구조 및 이익 추구, 통제체계 확보– 시스템기준: 리스크부담 및 관리 능력, 차별화된 시장 전략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스크부담을 위한 제도적 장치 확보– 은행의 자격 요건 및 리스크관리 능력 보유– 주주의 은행 관리감독 규정 수락– 차별화된 시장전략– 합법적인 회생 및 청산 절차 완비

주: 「민영은행발전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关于促进民营银行发展的指导意见》」 참고 저자 작성

■ 중국은 민영은행 시범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민간 부문에 대한 대출 확대 및 금융 부문 구조조정을 통한 경기 둔화세 완화를 목적으로 함.

– 중국은 2013년부터 민영은행의 설립을 장려하고 2014년 7월 시범적으로 민간기업이 출자하는 5개 민영은행 운영을 허가하였음.¹⁾

1) 2013년 7월 「금융의 경제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 지원 지도 의견(关于金融支持经济结构调整和转型升级的指导意见)」, 제 18기 삼중전회 및 2014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서에서 언급한 바 있음. (최필수, 2014. 중국의 민영은행 확대 정책과 설립 동향. 지역경제포커스 제14-9호)

표 2. 중국 민영은행 현황

은행명	설립 기업	영업 개시일	설립지역	자본금	비고
첸하이 웨이중은행 (前海微衆銀行)	텅원(騰訊控股) 바이예위안(百業源)	2015년 4월	광둥 선전 (廣東 深圳)	30억 위안	온라인 बैं킹으로 특화
저장 왕상은행 (浙江網上銀行)	알리바바(阿里巴巴) 완상(萬向)	2015년 4월	저장 항저우 (浙江 杭州)	40억 위안	온라인 बैं킹으로 특화
톈진 진청은행 (天津金城銀行)	화베이(華北集團) 상휘(商匯集團)	2015년 4월	톈진 (天津)	50억 위안	톈진자유무역시범구 내 영업 개시
상하이화루이 (上海花瑞銀行)	쥔야오(均瑤集團) 푸싱(復星集團)	2015년 1월 영업 승인	상하이 (上海)	30억 위안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내 영업 개시영업
윈저우 민상은행 (溫州民商銀行)	정타이(正泰集團) 화펑(華峰集團)	2015년 3월 영업 승인	저장 윈저우 (浙江 溫州)	20억 위안	-

주: 중국 주요언론 참고 저자 작성

– 이번 정책을 통해 민간자본의 민영은행 설립·투자를 촉진하고 은행업이 중소기업, 농업, 창업 등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는 중국이 뉴 노멀 시대를 맞아 추진하고자 하는 금융 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임.

○ 국무원은 2015년 6월 16일 국유은행 중 최초로 교통은행의 ‘혼합소유제’ 도입 개혁방안을 비준하고²⁾ 6월 25일 ‘예대율 제한 75%’ 규정을 삭제하는 「상업은행법 개정안 《商业银行法修正案》」을 통과시킴.

■ 이번 정책으로 △민간 대출 확대 △은행 부문 경쟁력 향상 △금융 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장기적으로 중국의 금융 부문 구조조정 및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은행업계는 외자기업의 민영은행 출자 동향을 예의주시하여 중국시장 진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중국 정부는 국유, 외자, 민간자본의 투자를 허용하고 공정한 은행 설립 심사 추진을 할 것으로 밝혔으나 외자는 외자관리조례에 따른다고 발표함.

– 민영은행의 온라인 बैं킹 플랫폼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전통적인 은행업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자료: 新華網, 人民網 등>

(이효진 연구원)

2) 교통은행은 국유 지분(현재 보유 지분 31%)을 줄여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사주 매입을 통한 지분 참여도 적극 유도할 방침임.